

## 기독교 청년들의 종교성과 강박적 성향의 관계

최민영\* 홍경화\*\*

### 국문초록

본 연구는 기독교 청년들의 종교성과 강박적 성향의 관계를 고찰하는 연구였다. 282명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신앙수준에 따른 기독교인 상, 중, 하 세 집단과 비기독교인 집단으로 분류해서 네 집단 간 강박신념, 강박증상 및 종교적 민감성의 평균차이를 비교함으로써 기독교와 강박증 관련 증상들의 관계를 살펴 보는데 목적이 있었다.

분산분석(ANOVA)을 통해 추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박신념과 6개의 하위 요인 중 '생각의 중요성' 요인에서 종교성 '하' 집단이 유의하게 높았다.

둘째, 강박증상과 6개의 하위 요인 중 '순수강박사고' 요인에서 종교성 '상' 집단이 유의하게 높았다.

셋째, 죄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종교적 민감성에서 기독교인 집단이 비기독교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연구결과는 기독교 청년들이 비기독교 청년들에 비해 종교적 신념과 관련된 생각의 중요성, 순수강박사고, 죄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등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일 뿐 나머지 12개 영역에서는 어떤 차이도 보이지 않았음을 말해 주었다. 연구자들은 종교적 강박증이 단순히 강박증의 한 종류로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 불안정한 요인들이 개인의 종교적 신념과 결부되어 종교적 강박증의 형태로 발전했음을 논의했다.

**중심단어 :** 기독교 청년, 강박적 성향, 종교적 민감성, 종교적 강박증, ANOVA

• 논문 투고일: 2015년 4월 16일

• 논문 수정일: 2015년 5월 9일

• 게재 확정일: 2015년 5월 15일

\* 햇빛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 햇빛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 I. 여는 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집계에 따르면 강박증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사이 13% 증가했고, 환자의 절반이 20-30대라는 보고가 있었다.<sup>1)</sup> 강박증의 원인이 아직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세로토닌 조절 이상과 같은 생물학적 취약성, 부모의 강압적인 억압, 지나치게 정돈된 환경의 강요, 정직하고 빈틈없는 일처리 요구 등 환경적 취약성과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취약성 등을 주요 원인으로 추정한다.<sup>2)</sup>

이 원인을 성인 전기에 놓인 20대-30대의 사람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성인전기는 개인적으로는 대학진학, 개인적인 목표 성취, 직업 선택, 배우자 선택 등의 복잡한 선택과 성취 문제에 직면하고 사회적으로는 독립된 성인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정치문제, 경제문제, 사회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과 접촉할 기회를 가지면서 그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기다. 이러한 발달적 특성 외에 현실적으로 취업문이 좁아지고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환경적 요인을 마주해야 하므로 성인 전기의 사람들은 큰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전쟁과 테러로 인한 불안 심리, 사건사고 같은 사회적 불안 요소 증가, 생존을 위한 과열 경쟁, 사이버 공간의 확대와 세대 간 대화의 단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욕구 좌절로 인한 분노와 증오심 등을 심리적, 환경적 강박 요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sup>3)</sup>

오늘날 기독 청년들도 심리적, 환경적 강박 요인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그들도 학교, 군대, 사회에서의 경쟁, 학점, 취업난, 결혼에 대한 압박,

---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 <http://www.hira.or.kr/main.do>.

2) S. Wilhelm & G. S. Steketee, *Cognitive Therapy for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신민섭·설순호·권준수 역, 『강박증의 인지치료: 전문가용 지침서』(서울: 시그마프레스, 2008), 9-10.

3) “대한민국 20-30대 ‘강박장애’로 불안에 떨고 있다”, <http://beauty.hankooki.com/news>.

임신 및 출산 등의 불안 요소를 삶 속에서 경험한다. 이에 더하여 기독교 청년들은 생각이 중요하고, 표면적으로는 생각과 행동에 등가의 가치를 매기는 교리적 특성에 노출되어 있어 사고-행동 융합과 같은 종교 교리의 형태와 강박증의 인지 신념 및 평가차원이 유사하게 보이기도 한다.<sup>4)</sup> 더욱이 Foa & Kozak는 강박증이 있는 425명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강박 사고의 내용 연구에서 종교가 다섯 번째로 흔한 강박사고의 주제라고 보고한다.<sup>5)</sup> 흔한 종교적 강박사고는 죄를 지었다는 혹은 지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신성모독적인 특징을 가진 이미지의 침투,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Nelson 외 연구자들은 강박증을 가진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종교적 민감성 (scrupulosity)을 종교적 강박증을 표현하는 중요한 용어로 소개했다.<sup>6)</sup> 종교적 민감성은 아무 것도 없는데서 죄를 찾아내고, 보다 중요한 부분은 열외로 하고 작고 사소한 종교적 사고 혹은 행위에 집착하는 행동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Antony 외 연구자들이 182명의 강박사고를 가진 성인과 청소년 연구에서 24.2%가 종교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하는 만큼<sup>7)</sup> 기독교 청년들의 종교성과 강박적 성향의 관계는 면밀히 고찰될 필요가 있다.

종교와 강박증의 관계는 프로이드가 처음 제안한다. 프로이드는 강박

4) 최민영 · 이유니, “강박증에 대한 기독교 상담적 이해”,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22권 1호(2014): 290-322.

5) E. B. Foa & M. J. Kozak. “DSM-IV Field Trial: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2(1995): 90-96.

6) E. A. Nelson, J. S. Abramowitz, S. P. Whiteside, & B. J. Deacon, “Scrupulosity in Patients with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Relationship to Clinical and Cognitive Phenomena,”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0(2006): 1071-1086.

7) M. M. Antony, F. Downie & R. P. Swinson. “Diagnostic Issues and Epidemiology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eds. R. P. Swinson, A. M. Martin, M. M. Antony, S. Rachman, & M. A. Richter (New York: Guilford Press), 3-32에서 재인용.

적 신경증을 개별적 종교로, 종교를 보편적 강박신경증으로 설명한다. 그는 또한 종교 의례(ritual)와 임상적 강박행동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믿는다.<sup>8)</sup> 이후 Rachman이 어떤 종교적 신념이나 가르침에서처럼 가치가 부과된 생각이 중요하다고 배운 사람들이 강박사고의 경향을 더 많이 드러낸다고 주장한 이래<sup>9)</sup> 종교, 종교성과 강박증 혹은 강박증상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문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Sica와 연구자들,<sup>10)</sup> Abramowitz와 연구자들<sup>11)</sup>은 신앙의 강도와 강박증상이 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하고, Rassin & Koster<sup>12)</sup>, Zohar와 연구자들<sup>13)</sup>과 Siev & Cohen<sup>14)</sup>은 강박사고의 구성요인 가운데 종교와 사고-행동의 융합과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고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Lewis<sup>15)</sup>, Steketee와 연

- 
- 8) E. Tek & B. Ulug, "Religiosity and Religious Obsessions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Psychiatry Research* 104(2001): 100-108; I. Osborn, *Can Christianity Cure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Grand Rapids: Brazos, 2008), 24.
- 9) S. Rachman, "A Cognitive Theory of Obsess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5, no. 9 (1997): 798.
- 10) C. Sica, C. Novara & E. Sanvio, "Religiousness and Obsessive-Compulsive Cognitions and Symptoms in an Italian Populatio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0(2002): 813-823.
- 11) J. S. Abramowitz, B. J. Deacon, C. M. Woods, & D. F. Tolin, "Association between Protestant Religiosity and Obsessive-Compulsive Symptoms and Cognitions," *Depression and Anxiety* 20, no. 2(2004): 70-76.
- 12) E. Rassin & E. Koster, "The Correlation between Thought-Action Fusion and Religiosity in a Normal Sampl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1(2003): 361-368.
- 13) A. H. Zohar, E. Goldman, R. Calamary, & M. Mashiah, "Religiosity and Obsessive-Compulsive Behavior in Israeli Jew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3(2005): 857-868.
- 14) J. Siev & A. B. Cohen, "Is Thought-Action Fusion Related to Religiosity? Differences between Christian and Jew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5(2007): 829-837.
- 15) C. A. Lewis, "Religiosity and Obsessionality: The Relationship between Freud's 'Religious Practices'," *Journal of Psychology* 128(1994): 189-196.

구자들<sup>16)</sup>, Hermesh의 연구자들<sup>17)</sup>, Tek, & Ulug<sup>18)</sup>은 종교와 강박증의 상관관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음을 보고한다.

서구 사회에서 종교와 강박증의 상관관계 연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30년의 개신교 역사 속에 860만 기독교 인구<sup>19)</sup>를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 및 한국 기독교학계의 강박증 연구는 기독교대학생과 비기독교대학생 간의 강박성향을 비교한 류현미<sup>20)</sup>와 강박증을 기독교 상담적 입장에서 이해한 최민영 · 이유니<sup>21)</sup>를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류현미는 기독교와 강박증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성경, 기도, 묵상, 예배 등을 강박성향을 치료하는 은혜의 방편으로 소개한다. 최민영 · 이유니는 심도있는 문헌연구를 통해 강박증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도모하고 있으나 실제 우리 사회의 기독교와 강박증의 관계에 대한 연구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대부분 배움의 단계의 마지막 시기에 걸쳐 있거나 일과 가정의 단계에서 자신만의 생산성을 발휘하여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고, 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고 조직체 생활을 하는 등 사회적으로 정착하는 시기<sup>22)</sup>에도 만성적인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청년층, 주로 20-30대를 대상으로 기독교 신앙이 강

16) G. Steketee, S. Quay & K. White, "Religion and Guilt in OCD Patient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5(1991): 359-367.

17) H. Hermesh, R. Masser-Kavitzky & R. Gross-Isseroff,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and Jewish Religiosity,"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1(2003): 201-203.

18) Tek & Ulug, "Religiosity and Religious Obsessions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100-108.

19) 류성민, "한국 종교 인구 분포 비율의 변화와 그 특징:1985년, 1995년, 2005년의 인구센서스를 중심으로", 한국종교학회, 『종교연구』 제56권(2009): 28.

20) 류현미, "기독교대학생과 비기독교대학생 간의 강박성향 비교"(석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 목회대학원, 2003).

21) 최민영 · 이유니, "강박증에 대한 기독교 상담적 이해", 290-322.

22) W. Sadler, *The Third Age*, 김경숙 역, 『서드 에이지, 마흔 이후 30년』 (서울: 사이, 2006).

박신념, 강박 증상 및 종교적 민감성(*scrupulosity*)과 관계가 있는지 살펴 보고 관계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 관계 모형을 가지는지, 관계가 없다면 기독교 교리 형태와 강박증의 인지 신념 및 평가 차원의 유사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 II. 펴는 글

### 1. 이론적 배경

#### 1) 관련 연구의 개요

종교와 관련된 강박증 연구는 Steketee의 연구자<sup>23)</sup>들이 가톨릭, 개신교, 유대교, 기타 종교에 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종교와 강박증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이래 점진적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화를 배경으로 연구대상을 달리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연구는 Rachman이 종교적 가치와 강박사고의 관련성을 피력한 이래 유일신을 신앙하는 종교가 주류를 이루는 서구사회와 모슬렘 사회에서 더욱 가속되었다.

Sica와 연구자들은 가톨릭 교인들을 대상으로 종교와 강박사고 및 강박증적 인지와의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했고<sup>24)</sup>, Abramowitz와 연구자들은 기독교인들을 신앙 수준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눈 후 무신론자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신앙 수준이 높을수록 OCI-R 척도에서 보다 심각한 강박사고 증상을 나타낸다고 보고했다.<sup>25)</sup> 아랍권에서는 Tezcan & Millet

23) Steketee, Quay & White, "Religion and Guilt in OCD Patients," 359-367.

24) Sica, Novara & Sanvio, "Religiousness and Obsessive-Compulsive Cognitions and Symptoms in an Italian Population," 813-823.

25) J. S. Abramowitz, B. J. Deacon, C. M. Woods, & D. F. Tolin, "Association between Protestant Religiosity and Obsessive-Compulsive Symptoms and Cognitions," *Depression and Anxiety* 20, no. 2(2004): 70-76.

은 이스턴 터키에서 표집한 환자 샘플에서 종교적 강박행동이 오염/씻기 강박에 이어 두 번째로 흔한 강박유형이라고 보고했다.<sup>26)</sup> Zohar의 연구자들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서 종교성과 강박행동의 관계를 연구한 후 높은 종교성 집단과 낮은 종교성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했다.<sup>27)</sup> Shams & Milosevic 등은 이란인들을 대상으로 강박증적 인지, 증상, 종교성을 연구한 결과 위협평가와 책임감, PIOS 척도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보고했다.<sup>28)</sup>

종교와 강박증이 관계가 없다는 연구도 있었다. Tek & Ulung는 종교적 강박사고 유무에 따라 환자집단을 나누어 강박증상의 심각도를 비교한 집단 간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sup>29)</sup> Hermesh의 연구자들은 유대 종교와 OCD의 상관관계 연구에서 OCD 집단, 공황장애 집단, 일반 통제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보고했으며<sup>30)</sup> Assarian의 연구자들도 이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종교성과 강박증 간에 연결점을 찾지 못했다고 보고했다.<sup>31)</sup>

---

26) E. Tezcan & B. Millet, "Phenomenology of Obsessive-Compulsive Disorders. Forms and Characteristics of Obsessions and Compulsions in Eastern Turkey," *Encephale* 23(1997): 342-350.

27) A. H. Zohar, E. Goldman, R. Calamary, & M. Mashiah, "Religiosity and Obsessive-Compulsive Behavior in Israeli Jew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3(2005): 857-868.

28) G. Shams & I. Milosevic, "Obsessive-Compulsive Cognitions, Symptoms and Religiousness in an Iranian Popul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linical Medicine* 4(2013): 479-484.

29) Tek & Ulug, "Religiosity and Religious Obsessions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99-108.

30) Hermesh, Masser-Kavitzky & Gross-Isseroff,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nd Jewish Religiosity," 201-203.

31) F. Assarian, H. Biqam & A. Asqarnejad, "An Epidemiological Study of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mong High School Students and Its Relationship with Religious Attitudes," *Archives of Iranian Medicine* 9, no. 2(2006): 104-107.

우리나라에서는 류현미가 유일하게 기독교대학생과 비기독교 대학생 간의 강박성향 비교연구를 시도했다. 연구자는 기독교 대학생이 강박신념(류현미는 강박관념이라고 씀)에 다소 높은 점수를 얻었고 강박행동에는 더 낮은 점수를 얻었으며 기독교와 강박증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과만 보고할 뿐 기독교 대학생의 강박관념에 대해 아무런 해석도 하지 않고 성경, 기도, 묵상, 예배 등을 강박성향을 치료하는 은혜의 방편으로만 소개하고 있는 데는 다소 아쉬움이 남았다.<sup>32)</sup>

한편 Nelson의 연구자들은 OCD 환자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종교적 민감성이 강박사고 증상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사고의 중요성, 사고 통제의 필요성, 사고와 행동의 융합 등 몇 가지 OCD의 인지영역과도 높은 상관이 있음을 보고했다.<sup>33)</sup> Huppert의 연구자들은 초정통주의 유대인의 종교적 민감성을 연구하면서 종교와 강박증이 충돌할 때, 그들의 종교성을 충분히 인정하는 기반 위에 강박증을 치료한 사례를 소개했다.<sup>34)</sup> 여기서 연구자들은 하나님과의 연합이 강박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박증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방해한다는 기본 입장에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이 연구는 종교와 강박증의 상관관계를 고찰하는 연구들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종교적 강박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들에게 치료적으로 접근하는 중요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었다.

유일신의 종교성과 강박증의 상관관계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한국의 기독교 상담 영역에서도 다양성보다는 단선 상향의식이 강하고 완전을

32) 류현미, “기독교대학생과 비기독교대학생 간의 강박성향 비교”(석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 목회대학원, 2003).

33) Nelson, Abramowitz, Whiteside, & Deacon, “Scrupulosity in Patients with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1071-1086.

34) J. D. Huppert, J. Siev & E. S. Kushner, “When Religion and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Collide: Treating Scrupulosity in Ultra-Orthodox Jew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3, no. 10(2007): 925-941.

추구하는 사회적 강박경향<sup>35)</sup>에 노출되어 있는 한국의 기독교 청년들이 자신의 종교성으로 인해 비기독교 청년들보다 강박사고와 강박증상에 더 영향을 받는지,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강박사고와 강박증상을 더 많이 보이며, 그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 진다.

## 2) 강박증 이해

강박증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사고, 충동, 심상이 장애가 일어나는 어느 시점에서 침투적이고 원치 않는 것으로 경험되는 강박사고와 그것을 무시하거나 억압하기 위해 다른 사고나 행동으로 중화하려는 시도인 강박행동으로 구분된다.<sup>36)</sup>

Salkovskis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침투사고가 그 생각의 내용, 침투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 침투사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 등으로 인해 과도하고 비합리적인 평가와 해석을 내림으로써 강박사고로 발전하게 된다고 주장한다.<sup>37)</sup> 이에 강박증적 인지에 대한 작업집단(Obsessive Compulsive Cognitions Working Group: OCCWG)은 인지적 평가가 특정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고 기대나 판단을 하는 것이라면 그 평가의 틀이 모든 상황으로 일반화되어지는 것을 강박신념이라고 보고 그 신념을 6가지로 분류하여 기술하였다.<sup>38)</sup> 6가지 신념이란 생각을 지나치게 중요시하는 것, 과도

35) 이규태, 『한국인의 버릇』 (서울: 신원문화사, 1991), 113, 133.

36)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SM-5* (Allington, VA.: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2013), 237.

37) P. M. Salkovskis, "Cognitive-Behavioural Factors and the Persistence of Intrusive Thoughts in Obsessional Problem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7(1985): 571-584.

38) Obsessive Compulsive Cognition Working Group, "Cognitive Assessment of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5 (1997): 667-681.

한 사고 통제, 위험에 대한 과대평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의 결핍, 과도한 책임감, 완벽주의다. 생각을 지나치게 중요시하는 신념 속에는 사고가 행위의 전조가 된다는 사고-행위 융합(thought-action fusion: TAF)이 포함된다. 사고-행위 융합은 생각이 행동을 하는 것과 같다는 도덕적 융합이나 생각이 실제로 그러한 행동을 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가능성 융합을 하위개념으로 가진다.

생각을 지나치게 중요시하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외부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거나 생각은 곧 어떤 의미에서 행동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하고 그 생각을 과도하게 통제하려고 시도하게 된다. 사고통제 신념은 사고에 대한 완벽한 통제가 가능하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서 시작된다. 그러나 특정 사고를 통제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반동효과를 불러와서 그 사고에 매임으로써 강박사고가 강화될 수 있다. 위험에 대한 과대 평가 신념은 개인이 종종 위험이나 실수할 가능성을 과대평가하고 또 최악의 파국적 결과를 예상하게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의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비해 강박증에 노출된 사람들은 완전히 안전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여긴다. 오염을 과도하게 염려하는 사람들, 끔찍한 결과를 예측하며 염려하는 사람들에게서 주로 발견되는 신념이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의 결핍은 모호한 상황을 견디는 힘이 부족하고 자신의 결정이나 행동의 적합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심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신념에 사로잡힌 개인은 안심추구, 재확인, 다시 읽기 같은 강화행동을 반복할 수 있다. 이러한 신념은 또, 모든 문제에 정확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능하고 또 찾아야 한다고 가정하는 신념인 완벽주의와도 연결된다. 완벽주의는 작은 실수조차도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씻고, 완벽하게 확인하며, 완벽하게 정돈하려 한다. 과도한 책임감은 자신이 원치 않는 결과를 일으키거나

예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신념과 관계있다. 그러므로 개인은 두려운 결과의 책임을 타인과 공유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고 여김으로써 죄책감을 갖고 그것을 완화하려는 강박행동을 한다. OCCWG는 이러한 강박신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강박신념 질문지(OBQ)를 개발했다.

강박행동은 강박사고에 의해 야기된 정서적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행동을 말한다. 오염에 대한 공포를 해소하기 위한 씻기행동, 정확하고 완벽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리정돈행동, 모든 상황이 안전한 지를 반복적으로 점검하는 확인행동, 쓸모없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언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쌓아두는 저장행동, 불필요하게 숫자에 집착하고 세는 행동이나 일상적 행위나 특별한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정신적 중화를 피하려는 시도 등이 대표적인 강박행동이다. Foa 외 연구자들은 이러한 다섯 가지 강박증상에 강박행동을 배제하고 있는 순수강박사고(공격적/성적/종교적 사고)를 합하여 강박증상 목록(OCI, OCI-R)을 개발했다.<sup>39)</sup>

종교적 강박증과 등가의 의미로 사용되는 종교적 민감성(*scrupulosity*)은 죄나 신적인 보복에 대한 두려움,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은 두려움과 같이 종교적, 도덕적 공포와 관련이 있는 강박사고와 연결되어 과도한 종교적 행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종교 강박증의 구인이자 유형으로 고찰된다.<sup>40)</sup> 종교적 민감성은 종교적 의무를 병리적으로 반복수행하면서 그것을 제대로 했는지 재확인한다는 점에서 다른 강박증 유형과 비슷하다. 차이점이 있다면 두려워하는 결과가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내용이라는 측

39) E. B. Foa, J. D. Huppert, S. Leiberg, R. Langner, & R. Kichic. "The Obsessive-Compulsive Inventor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hort Version," *Psychological Assessment* 14, no. 4 (2002): 485-496.

40) C. Purdon & D. A. Clark, *Overcoming Obsessive Thoughts: How to Gain Control of Your OCD*(Oakland, CA.: New Harbinger Press, 2005)

면이다. Nelson의 연구자들에 따르면 종교적 민감성이라고 불리는 종교적 강박증상은 죄가 없는 곳에서 죄를 발견하고 신앙의 큰 맥락은 배제하고 아주 사소한 부분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sup>41)</sup> 종교적 강박사고는 자신이 죄를 저질렀다는 두려움, 신성모독적인 생각의 침투, 하나님이 벌주시고 지옥에 간다는 공포와 관련이 있고 종교적 강박행동은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제 되었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과도한 기도, 종교적 의례, 성직자들로부터 재확신에 대한 반복적 수행과 관련된다. Abramowitz의 연구자들은 종교적 민감성을 두 가지 하위 요인, 즉 죄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 받는 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구성한 종교적 민감성 목록(Penn Inventory of Scrupulosity: PIOS) 목록을 개발했다.<sup>42)</sup>

## 2. 연구문제와 가설

###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기독교 청년들이 발달과업과 관련하여 가지는 개인적인 문제와 취업문의 축소, 세대간의 갈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인한 심리적 압박과 함께 그들에게 부과된 종교적 가치가 강박신념, 강박증상, 및 종교적 민감성과 관련이 있는지를 고찰한다. 이를 위하여 기독교 집단과 비기독교 집단을 나눈 후 다시 기독교 집단을 신앙심, 신앙생활의 신앙수준을 묻는 자기보고형 척도에 응답한 내용에 따라서 '종교성 상' 집단, '종교성 중' 집단, '종교성 하' 집단으로 분류함으로써 네 집단을 비교하는 연

---

41) Nelson, Abramowitz, Whiteside, & Deacon, "Scrupulosity in Patients with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1071-1086.

42) J. S. Abramowitz, J. D. Huppert, A. B. Cohen, D. F. Tolin, & S. P. Cahill. "Religious Obsessions and Compulsions in a Non-Clinical Sample: The Penn Inventory of Scrupulosity(PIO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0(2002): 825-838.

구를 진행한다.

## 2) 연구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아래와 같다.

가설 1. 네 집단 간 강박신념에 차이가 있다.

가설 2. 네 집단 간 강박증상에 차이가 있다.

가설 3. 네 집단 간 종교적 민감성에 차이가 있다.

## 3.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수도권 지역의 장로교단 소속 3개 교회의 20대와 30대 40대 초반의 청년부 성도들과 4개의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 대학원생 및 소수의 일반인으로 구성되었다. 질문지 응답자는 304명이었다. 그 중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16명을 제외하고 총 288명을 분석했다. 연령 구성 20대 185명(64.2%), 30대 85명(29.5%), 40대 18명(6.2%)이었고, 성비는 남자 119명(41.3%), 여자 169명 (58.6%), 종교비는 기독교인 197명(68.4%), 비기독교인 85명(29.5%), 가톨릭 신자 6명(2%)였다. 여기서 다시 기독교인의 종교성과 강박증의 관계를 고찰하는 연구이므로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유사한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가톨릭 신자 6명을 제외했다. 따라서 전체 표본 수는 282명이 되었고 그 가운데 기독교인 197명을 다시 세분하였을 때 신앙심과 신앙생활의 자기보고에 의한 평가 기준으로 종교성 '상' 31명(11.6%), 종교성 '중' 135명(48.7%), 종교성 '하' 31명(11.6%)으로 분류되었다. 나머지 비기독교인 집단은 85명(28.2%)이 참여했다.

## 2) 측정도구

(1) 한국어판 강박 신념 질문지(Obsessive Beliefs Questionnaire 87: OBQ-87)

강박증의 인지행동적 체계와 관련하여 '강박증적 인지에 대한 작업집단(OCCWG)'에서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는 6가지 핵심적 강박신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87개 문항으로 개발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다. 질문지에 포함된 핵심신념은 과도한 책임감, 생각을 지나치게 중요시함, 사고 통제, 위협의 과대평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심 부족, 완벽주의다. 각 항목은 1점, 매우 많이 동의하지 않음부터 7점, 매우 많이 동의함의 7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되며 6가지 개념으로 구성된 항목들이 각각 13-16개로 구성되어 있다.

OBQ-87의 신뢰도는 단일 척도 신뢰도 .87~.93으로 보고되고, 요인별 신뢰도는 .69~.83로 보고된다. Yale-Brown 강박척도와 상관관계가 높다( $r=.38-.63$ )<sup>43)</sup> 본 연구에서는 신민섭, 설순호, 권준수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했는데 척도의 신뢰도와 진단 분할점(cutoff score)이 따로 보고되지 않았다.<sup>44)</sup> 이 질문지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김승완이 단일척도 신뢰도 .97, 요인별 신뢰도 .81-.87로 보고했다.<sup>45)</sup> 본 연구에서 Cronbach  $\alpha=.952$ 였고 하위의 6가지 인지영역도 .93-.94였다.

(2) 한국어판 단축형 강박 증상 목록(Obsessive-Compulsive Inventory-Revised-Korean: OCI-R-K)

OCI-R은 Foa와 연구자들이 초기 7가지 증상의 42개 문항을 간결한 형태로 재구성하여 개발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강박 증상 가운데 씻기, 확인, 정리정돈, 강박사고, 저장, 중화행동의 6가지 증상을 평가하도록 구

43) Obsessive Compulsive Cognitions Working Group.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Obsessive Beliefs Questionnaire and the Interpretations of Intrusions Inventor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9 (2001): 987-1006.

44) Wilhelm & Steketee, *Cognitive Therapy for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261-265.

45) 김승완, "강박적 신념과 강박증상의 관계에서 경험적 회피의 매개효과"(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대학원, 2011).

성되어 있다. 각 항목은 0점, ‘전혀 아니다’에서 4점, ‘항상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만들어져 있으므로 각 증상에 해당하는 요인의 총점은 0점에서 12점, 전체 점수는 0점에서 72점으로 평가된다.<sup>46)</sup> 전체 점수의 내적 합치도가 높다( $\alpha$ 계수 = .81-.93). Foa와 연구자들이 보고한 전체 신뢰도는 .81, 요인별 신뢰도는 .82-.90다. 진단 분할점을 21점으로 제안한 연구가 있으나 Woo와 연구자들은 한국어판에서는 22점이 적절하다고 보고하였다.<sup>47)</sup>

본 연구에서는 임준석이 한글로 번안한 한국어판 단축형 강박증상 목록(OCI-R-K)을 사용하였으며 임준석은 .90의 신뢰도를 보고하였다.<sup>48)</sup> Woo와 연구자들은 학생집단 전체 신뢰도 .90, 강박장애집단 전체신뢰도 .87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84, 하위 영역 신뢰도 .79-.83이었다.

(3) 펜의 종교적 민감성 목록(The Penn Inventory of Scrupulosity: PIOS)

PIOS는 Abramowitz와 연구자들이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강박증의 한 부분에 포함되는 종교적 민감성(scrupulosity, 종교적 강박증)에 대한 19문항의 자기보고식 평가지다. PIOS는 죄에 대한 두려움(Fear of Sin)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벌에 대한 두려움(Fear of God)의 2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은 0점, ‘전혀 아니다’에서 4점, ‘항상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만들어져 있다.<sup>49)</sup> 척도를 개발할 때 연구자

46) Foa, Huppert, Leiberg, Langner, & Kichic. “The Obsessive-Compulsive Inventor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hort Version,” 485-496.

47) C. W. Woo, S. M. Kwon, Y. L. Lim, & M. S. Shin. “The Obsessive-Compulsive Inventory-Revised(OCI-R):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Korean Version and the Order, Gender, and Cultural Effects,”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41, no. 3(2010): 220-227.

48) 임준석, “한국어판 단축형 강박증상 목록(OCI-R-K)의 비임상군에서의 신뢰도와 타당도”(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2007)

49) Abramowitz, Huppert, Cohen, Tolin, & Cahill. “Religious Obsessions and Compulsions in a Non-clinical Sample,” 825-838.

들은 참여자들에게 종교교과와 신앙적 헌신도 1문항을 5점 리커트로 평가했다. PIOS 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나는 내 생각이 정직하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 “나는 내 죄를 계속 고백해야 할 것 같다.” “나는 항상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 벌을 받을까 염려된다.” “나는 내가 부정직하게 행동했을까 봐 많이 걱정된다.” 등이었다. 문항의 내적 합치도를 나타내는 알파계수가 .93, 죄에 대한 두려움은 .90,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88로 보고되었다. PIOS의 수렴타당도는 Maudsley Obsessional compulsive Inventory(MOCI)와 상관관계를 통해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했다( $r=.36$ ). PIOS는 본 연구자가 번안하고 이중 언어구사자가 역번역하여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88이었다. OBQ( $r=.588$ )와 OCI-R-K( $r=.586$ )와의 상관관계도 유의미하였다.

#### (4) 신앙 수준 척도

본 연구의 신앙수준 척도는 종교와 강박증의 관계를 연구한 국외 연구들<sup>50)</sup>에서처럼 종교, 신앙심, 신앙생활에 대한 3문항 자기보고식 질문을 했다. 먼저 기독교와 비기독교인을 구별하고 기독교인일 경우 “귀하의 신앙심은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의 신앙심의 수준과 “귀하의 신앙생활은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의 신앙생활의 수준을 묻는 문항으로 구별하여 1점, ‘매우 좋지 않다’ 부터 5점 ‘매우 좋다’ 의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했다. 신앙수준을 구별할 때 신앙심, 신앙생활의 자기보고 점수를 합하여 4점이하를 ‘하’, 5-7점을 ‘중’, 8점 이상을 ‘상’ 으로 나눴다.

50) Abramowitz, Deacon, Woods, & Tolin, “Association between Protestant Religiosity and Obsessive-Compulsive Symptoms and Cognitions,” 70-76.; Shams & Milosevic, “Cognitions, Symptoms and Religiousness in an Iranian Population,” 479-484; Steketee, Quay, & White, “Religion and OCD Patients,” 359-367.

###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설문지를 선택하고 연구목적에 밝히고 연구에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비밀유지와 설문참여로 동의를 대신한다는 안내문을 첨부하여 설문지를 준비했다. 그 과정에서 연구목적에 맞는 종교적 민감증 한국어판 검사목록인 PIOS는 본 연구자가 번안하고 박사과정생 2명과 검토한 후 이중 언어 사용자인 한국인 1명이 역번역하는 과정을 거쳐 지도교수의 감수를 받아 문항을 결정했다.

표집은 2014년 5월 11일-6월 1일까지 편의표집과 스노우볼 표집으로 실시했다. 표집의 1/2은 연구자 본인이 다니는 교회의 청년부와 이웃교회의 청년부 리더를 미리 만나서 연구의 취지와 설문 방법을 설명한 후 서면 설문지를 배포하도록 했고 일부는 각 대학과 대학원의 지도교수들을 통하여 연구의 목적과 설문 방법을 설명한 후 각각 20명에게 전자설문지를 보내도록 한 후 그들이 3명에게 설문을 보내고 다시 3명에게 설문을 보내는 형식을 취했다. 전자설문지는 웹 페이지 형식으로 제작하여 응답이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입력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서 개인의 스마트폰으로 전달되었다. 설문지 홈페이지를 문자로 전송받은 개인은 링크된 주소로 방문하여 설문에 응답했다. 서면 설문지는 250부 중 147부가 회수되었고, 전자설문지는 157개가 입력되었다.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16부와 가톨릭 신자 6명을 제외하고 282명의 자료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되었다. 기독교 집단의 신앙수준에 따른 상, 중, 하 세 집단과 비기독교인 집단과의 종교적 강박성향의 평균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시행했다.

#### 4. 연구결과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자기보고에 따라 기독교인 집단을 종교성 상, 종교성 중, 종교성 하의 세 집단으로 나누고 비기독교인 집단을 포함하여 네 집단간 평균을 비교하는 분산분석(ANOVA)를 실시했다. 결과는 <표1>와 같다.

<표 1> 분산분석(ANOVA) 결과

변인	HR n=31	MR n=135	LR n=31	NR n=85	F/P	사후검증 결과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OBS-87						
강박신념	306.7(80.7)	293.4(82.1)	320.6(62.2)	285.2(74.0)	1.783/.151	
불확실성 인내	48.2(12.42)	46.5(12.56)	50.29(9.24)	44.9(10.6)	1.732/.161	
위험평가	46.7(15.4)	43.6(14.8)	49.2(12.3)	43.8(14.3)	1.554/.201	
사고통제	54.6(13.7)	53.0(14.4)	56.3(12.1)	51.5(13.1)	1.004/.392	
생각의 중요성	47.1(17.0)	44.8(14.3)	48.7(14.1)*	40.4(14.0)	3.220/.023*	L>H,M,N
완벽주의	50.0(17.7)	47.2(17.3)	51.6(13.0)	47.7(15.3)	.768/.513	
책임감	59.9(12.8)	58.1(16.5)	64.3(12.1)	56.6(14.7)	2.019/.111	
OCI-R_K						
강박증상	26.1(12.1)	22.5(10.6)	24.5(12.4)	22.3(12.2)	1.109/.346	
저장	4.64(2.27)	4.17(2.40)	4.70(2.58)	3.69(2.26)	1.999/.114	
확인	4.71(2.95)	4.35(2.55)	4.48(2.63)	4.50(2.78)	.164/.921	
정리정돈	5.32(3.22)	4.75(2.63)	4.42(2.89)	4.70(2.73)	.749/.524	
중화행동	3.41(2.91)	2.85(2.33)	3.58(2.48)	3.41(2.30)	1.446/.230	
씻기/청결	3.54(3.25)	2.51(2.24)	2.96(2.93)	3.08(2.65)	1.755/.156	
순수강박사고	4.51(2.39)*	3.88(2.43)	4.38(2.29)	3.15(2.55)	3.343/.020*	H>M,L,N
PIOS						
종교적 민감성	32.1(15.3)**	29.1(15.6)*	27.9(17.5)*	17.5(15.5)	10.985/.000**	H,M,L>N
죄의 두려움	21.0(9.86)*	17.71(9.96)*	17.16(10.8)	12.0(1.02)	7.788/.000**	H,M,L,N
벌의 두려움	11.1(6.07)**	11.45(6.15)**	10.8(7.36)*	5.50(5.73)	16.524/.000**	H,M,L>N

HR: 종교성 상, MR: 종교성 중, LR: 종교성 하, NR:비기독교

\*\* p<0.01, \*p<0.5

연구자들은 네 집단의 OBQ-87, OCI-R-K, PIOS 하위요인과 전체척도의 점수를 비교하였다. OBQ-87 전체점수와 하위요인 점수에서 다소 높은 점수를 받은 집단은 '종교성 하'의 집단이었다. 그러나 강박신념 전체점수와 6개의 하위 요인 중 생각의 중요성을 제외하고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OBQ-87의 하위 요인 중 생각의 중요성 요인은 '종교성 하' 집단이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OCI-R-K 척도에서 기독교 세 집단이 강박증상 전체점수와 6개의 하위 요인 중 순수강박사고 요인을 제외하고 비기독교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OCI-R-K의 하위 요인 중 순수강박사고 요인은 '종교성 상' 집단이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PIOS 전체 척도 및 하위요인에는 유의수준 0.01에서 '종교성 상', '종교성 중', '종교성 하' 집단이 비기독교인 간 차이를 보였다.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 검정(Scheffe 분석)을 실시한 결과 생각의 중요성 요인에서 '종교성 하' 집단이 기타 집단보다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고 순수강박사고 요인에서 '종교성 상' 집단이 기타 집단보다 유의미한 점수 차이를 보였다. 종교적 민감성 전체척도와 하위 척도인 하나님으로부터의 벌에 대한 두려움 요인에서 종교성 수준과 상관없이 기독교 집단이 비기독교인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죄에 대한 두려움 요인에는 종교성 상, 중 집단이 종교성 하 집단과 비기독교인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III. 닫는 글

본 연구를 위하여 기독교 집단과 비기독교 집단을 구별하고 기독교 집단을 다시 자기 보고한 신앙 수준에 따라 '종교성 상', '종교성 중', '종교성 하'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전체 네 개의 집단을 만들어서 집단 간 강

박신념, 강박증상 및 종교적 민감성의 평균차이를 비교해봄으로써 기독교와 강박적 성향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었다. 연구결과, 강박신념의 전체점수와 6가지 하위 요인점수 중 '생각의 중요성'에 있어 '종교성 하' 집단이 비기독교 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점수차를 보임으로써 가설 1이 매우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또 강박증상의 전체점수와 6가지 하위 요인점수 중 '순수강박사고'에 있어 '종교성 상' 집단이 타 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점수차를 나타냄으로써 가설 2도 매우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죄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벌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할 종교적 민감성은 종교성의 수준을 막론하고 비기독교인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가설 3이 채택되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생각의 중요성, 순수강박사고 요인에서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보다 강박적 사고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는 기독교 대학생과 비기독교 대학생의 강박성향을 비교한 류현미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신앙적 수준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종교와 강박증의 관계를 연구한 Abramowitz와 연구자들<sup>51)</sup>과 Sica와 연구자들<sup>52)</sup> Sieve와 연구자들<sup>53)</sup>의 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Abramowitz와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는 높은 수준의 종교성을 가진 기독교인 집단이 중간 수준의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에 비해 보다 크게 강박사고 증상을 보이며 특히 씻기, 순수강박사고, 사고통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 결핍, 책임감 등에서 높은 수준의 차이를 보고했다. Sica와 연구자들 또한 높은 수준의 종교성을 가진 집단이 순수강박사고, 생각의 중요성, 사고

51) Abramowitz, Deacon, Woods, & Tolin, "Association between Protestant Religiosity and Obsessive-Compulsive Symptoms and Cognitions," 70-76.

52) Sica, Novara & Sanvio, "Religiousness and Obsessive-Compulsive Cognitions and Symptoms in an Italian Population," 813-823.

53) Siev & Cohen, "Is Thought-Action Fusion Related to Religiosity? Differences between Christian and Jews." 829-837.

통제, 완벽주의, 책임감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고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기독교인의 생각의 중요성 중 도덕적 사고 융합(TAF)를 연구한 Sieve 외 연구자들은 생각의 중요성 중 도덕적 TAF가 기독교인에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연구 가설의 혼합된 결과를 분석한 도덕적 TAF가 종교적 신념이 중요한 기독교인들에게는 OCD 증상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종교성과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동시에 그들은 그러한 종교적 신념이 사회적 문화적으로 보편적 가치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도덕적 TAF가 병리의 표식이 되었다고 해석했다. 이는 기독교인들에게 생각의 중요성이 종교적 신념으로 가치화되어 있으므로 그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병리적 OCD라기 보다는 종교성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종교성 상' 집단이 순수강박사고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얻었다. 순수강박사고는 강박행동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증상차원으로 분류된다. 남에게 해를 기치거나 공격적 행동을 할 지도 모른다는 공격적 강박사고, 금기시된 성적/변태적 생각이나 충동을 포함하는 성적 강박사고, 신성모독이나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집착하며 높은 도덕성을 추구하는 종교적 강박사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sup>54)</sup> 이 결과 역시 Sieve 외 연구자들의 주장처럼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개인에게는 병리보다는 종교적 가치,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이해되어야 한다. 그것은 OCI-R-K의 강박증상 전체점수와 기타 5가지 하위요인들에서는 세 개의 기독교 집단과 비기독교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얻을 수 없다는 점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

이 결과는 '종교성 상' 집단이 PIOS 전체 점수나 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부분과도 맥을 같이 한다. Abramowitz 외 연구자들

54) 권준수 외 공저, 『강박증의 통합적 이해』 (서울: 학지사, 2010), 48.

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니(마5:27-28)”,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요1 3:15)”라는 기독교 교리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기독교인들이 생각과 행동을 동등하게 여김으로써 침투적 생각에 불안을 느끼며 그 불안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반복적인 기도행위를 수행한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실제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추구하는바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나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생각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을 통제 밖에 두지 않음으로써 건강하게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원리와 성화라는 기독교의 핵심적 교리에 해당하며 그러한 마음지킴의 자세를 떠나서 그 교리를 실천하기는 어렵다. 그러한 가르침에 노출되는 모든 사람들이 종교적 강박증을 가지지 않는 것을 볼 때, 오히려 Salkovskis의 연구자들<sup>55)</sup>, Abramowitz의 연구자들이 주장했듯이 어릴 때 경험에서 만들어진 과도한 책임감이나 기존의 인지적 왜곡 등이 종교적 신념과 결탁하여 종교적 강박증상으로 발전되었다는 추론이 오히려 수용가능하다.

Huppert의 연구자들은 이에 대해 명료한 입장을 보여주었다.<sup>56)</sup> 그들은 다수의 문헌연구들을 통해 강박증이 문화별 차이가 없음을 밝혔다. 강박증이 어떤 문화나 사회에서는 더 많이 나타나고 다른 문화나 사회에서는 더 적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강박증의 구체적인 유형은 문화나 신념에 따라 다르게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1980년 대, AIDS가 돌 때나 2000년 대, 사스가 돌 때 씻기 강박이 많았듯이 강박증상의 유형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종교적 주제를 드러낼 뿐이라고 보았다. 사스가 강박증을 유발하지 않고 강박증의 유형과 관련이 있다고 하듯이 종교적 강박증도 종교가 강박증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강박증의 유형과 관련이 있다는

55) Salkovskis, “Cognitive-Behavioural Factors and the Persistence of Intrusive Thoughts in Obsessional Problems,” 571-584.

56) Huppert, Siev & Kushner, “When Religion and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Collide,” 925-941.

의미일 것이다. 연구자들은 종교적 강박증을 가지고 있던 내담자 집단을 치료한 사례연구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이 특정 종교를 갖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강박증상은 다른 형태로 나타났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기독교인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종교적 강박증을 고찰한 다수의 연구들이 마치 기독교가 강박증을 야기하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를 주었지만 본 연구에서 보듯이 다수의 강박신념과 강박증상 가운데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단지 '순수 강박사고' 요인과 '생각의 중요성' 요인뿐이라는 사실은 기독교의 강박성향에 대한 병리적 효과라기 보다는 마음의 중심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기독교적 신념으로 이해된다. 이 신념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독교 청년들은 죄와 벌에 대한 두려움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 PIOS에서 기독교인 세 집단과 비기독교인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강박신념과 강박증상에 기독교적 교리의 가르침과 관련된 생각의 중요성과 순수강박사고를 제외하고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이 종교적 강박증은 그 신념에 따라 강박증이 유형화되었다고 보여진다. 결국, 종교적 강박증은 종교와 강박증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관점에서라기보다는 강박증의 한 유형이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 불안정한 요인들이 종교적 신념과 결부되어 발전하는 것일 뿐 종교적 신념이 강박증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표본의 크기가 집단 별로 크게 차이가 있다는 점이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종교성 상' 집단, '종교성 하' 집단은 각각 표본의 크기가 '종교성 중' 집단의 1/4에 해당하므로 두 집단에서는 연구 참여자 한 사람의 응답이 전체 응답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표본의 연령이 성인 청소년기를 넘긴 20대의 비율이 높았던 점도 결과의 일반화를 제한할 수 있겠다. 20대의 인지적 특성이 논리적 규

칙에 매여 있고 하나의 합리적 결론을 추론하는 성향이 있어서 논리와 현실의 통합이 적용적으로 요구되는 장면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경험이 부족한 경향성이 연구의 일반화를 제한할 수 있겠다. 셋째, 불안이나 우울 등의 질환을 통제하지 않은 점이 연구의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안이나 우울로 인한 공존병리로서의 강박적 성향을 통제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큰 한계일 수 있다.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 간 표본의 크기를 비슷하게 하기 위하여 중간 부분을 선택하려는 일반적인 선호도를 고려한 평가가 필요하다. 둘째, 종교성의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를 개발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평가로 집단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종교적 강박증과 관련하여 개인적 특성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종교적 강박증과 관련하여 사회적 문화적 특성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불안과 같은 공존병리를 통제한 연구를 제안한다.

【 참고문헌 】

- 김승완. “강박적 신념과 강박증상의 관계에서 경험적 회피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대학원, 2011.
- 류성민. “한국 종교 인구 분포 비율의 변화와 그 특징: 1985년, 1995년, 2005년의 인구센서스를 중심으로”. 한국종교학회, 「종교연구」 제56권(2009): 25-66.
- 류현미. “기독교대학생과 비기독교대학생 간의 강박성향 비교”. 석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 목회대학원, 2003.
- 임준석. “한국어판 단축형 강박증상 목록(OCI-R-K)의 비임상군에서의 신뢰도와 타당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2007.
- 최민영 · 이유니. “강박증에 대한 기독교 상담적 이해”.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22권 1호(2014): 290-322.
- Abramowitz, J. S., B. J. Deacon, C. M. Woods, & D. F. Tolin. “Association between Protestant Religiosity and Obsessive-Compulsive Symptoms and Cognitions.” *Depression and Anxiety* 20, no. 2(2004): 70-76.
- Abramowitz, J. S., J. D. Huppert, A. B. Cohen, D. F. Tolin, & S. P. Cahill. “Religious Obsessions and Compulsions in a Non-Clinical Sample: The Penn Inventory of Scrupulosity(PIO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0(2002), 825-838.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SM-5*. Allington, VA.: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2013.
- Antony, M. M., F. Downie & R. P. Swinson. “Diagnostic Issues and Epidemiology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Eds. R. P. Swinson, A. M. Martin, M. M. Atony, S. Rachman, & M. A. Richter. New York: Guilford Press, 3-32.
- Assarian, F., H. Biqam & A. Asqarnejad. “An Epidemiological Study of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mong High School Students and Its Relationship with Religious Attitudes.” *Archives of Iranian Medicine* 9, no. 2(2006): 104-107.

- Foa, E. B., J. D. Huppert, S. Leiberg, R. Langner, & R. Kichic. "The Obsessive-Compulsive Inventor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hort Version." *Psychological Assessment* 14, no. 4(2002): 485-496.
- Foa, E. B. & M. J. Kozak. "DSM-IV Field Trial: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2(1995) 90-96.
- Hermesh, H., R. Masser-Kavitzky & R. Gross-Isseroff.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and Jewish Religiosity."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1 (2003): 201-203.
- Huppert, J. D., J. Siev & E. S. Kushner. "When Religion and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Collide: Treating Scrupulosity in Ultra-Orthodox Jew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3, no. 10(2007): 925-941.
- Lewis, C. A. "Religiosity and Obsessionality: the Relationship between Freud's 'Religious Practices'." *Journal of Psychology* 128(1994): 189-196.
- Nelson, E. A., J. S. Abramowitz, S. P. Whiteside, & B. J. Deacon. "Scrupulosity in Patients with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Relationship to Clinical and Cognitive Phenomena."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0 (2006): 1071-1086.
- Obsessive Compulsive Cognition Working Group. "Cognitive Assessment of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5(1997): 667-681.
- Obsessive Compulsive Cognitions Working Group.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Obsessive Beliefs Questionnaire and the Interpretations of Intrusions Inventor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9(2001): 987-1006.
- Purdon, C. & D. A. Clark. *Overcoming Obsessive Thoughts: How to Gain Control of Your OCD*. Oakland, CA.: New Harbinger Press, 2005.
- Rachman, S. "A Cognitive Theory of Obsess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5, no. 9(1997): 793-802.
- Rassin, E. & E. Koster. "The Correlation between Thought-Action Fusion and Religiosity in a Normal Sampl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1(2003): 361-368.
- Sadler, W. *The Third Age*. 김경숙 역. 『서드 에이지, 마흔 이후 30년』. 서울:사이, 2006.

- Salkovskis, P. M. "Cognitive-Behavioural Factors and the Persistence of Intrusive Thoughts in Obsessional Problem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7(1985): 571-584.
- Shams, G. & I. Milosevic. "Obsessive-Compulsive Cognitions, Symptoms and Religiousness in an Iranian Popul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linical Medicine*, 4(2013): 479-484.
- Sica, C., C. Novara & E. Sanvio. "Religiousness and Obsessive-Compulsive Cognitions and Symptoms in an Italian Populatio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0(2002): 813-823.
- Siev, J. & A. B. Cohen. "Is Thought-Action Fusion Related to Religiosity? Differences between Christian and Jew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5 (2007): 829-837.
- Steketee, G., S. Quay & K. White. "Religion and Guilt in OCD Patient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5(1991): 359-367.
- Tek, E. & B. Ulug. "Religiosity and Religious Obsessions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Psychiatry Research* 104(2001): 99-108.
- Tezcan, E. & B. Millet. "Phenomenology of Obsessive-Compulsive Disorders. Forms and Characteristics of Obsessions and Compulsions in Eastern Turkey." *Encephale* 23(1997): 342-350.
- Wilhelm, S. & G. S. Steketee. *Cognitive Therapy for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신민섭, 설순호, 권준수 역. 『강박증의 인지치료: 전문가용 지침서』.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8.
- Woo, C. W., S. M. Kwon, Y. L. Lim, & M. S. Shin. "The Obsessive-Compulsive Inventory-Revised (OCI-R):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Korean Version and the Order, Gender, and Cultural Effects."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41, no. 3(2010): 220-227.
- Zohar, A. H., E. Goldman, R. Calamary, & M. Mashiah. "Religiosity and Obsessive-Compulsive Behavior in Israeli Jew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3 (2005): 857-86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http://www.hira.or.kr/main.do>).
- "대한민국 20-30대 '강박장애' 로 불안에 떨고 있다." <http://beauty.hankooki.com/news>.

【 Abstract 】

## Association between Young Adult Christians' Religiosity and Obsessive-Compulsive Symptoms

**Min Young Choi & Kyungwha Hong**

Torch Trinity Graduate University

This research has its goal on finding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young adult christians' religiosity and their obsessive-compulsive symptoms by comparing the average differences of obsessive beliefs, OCD symptoms, and their scrupulosity. A total of 282 young adult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282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non-Christians and Christians. We further divided the Christians into 3 subgroups according to their self-reported levels of religious faith and activities. ANOVA was used to determine whether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4 groups in their obsessive beliefs, OCD symptoms, and scrupulosity.

The result revealed the following: Compared to other groups, the 'low religious' group showed meaningful differences in 'importance of thinking' with the low religious group exhibiting higher average scores.

With regards to OCD symptoms, 'highly religious' group showed meaningful differences in 'obsessing' compared to other groups, with highly religious groups exhibiting higher average scores.

Third, there were meaningful differences between the Christians and non-Christians in their averages of scrupulosity: specifically in 'fear of sin,' 'fear of God,' and the total score of PIOS .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young adult Christians did not differ from non-Christians except in 'importance of thinking', 'obsessing' and 'scrupulosity.' Based on these results, it can be inferred that religion is not directly related obsessive beliefs or OCD symptoms even when these symptoms are related to religious content.

**Key words:** young adult Christians, obsessive-compulsive symptoms, scrupulosity, religious OCD, ANOVA